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그레고리오스 네오게사리아의 주교

루가 제9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네오게사리아의 주교

제5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갈라디아 6, 11-18 / 봉독서 303

· 복음경: 루가 12, 16-21 / 129. B 7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그레고리오스 네오게사리아의 주교

우리 교회는 교회의 수많은 교부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네오게사리아의 대주교이자 기적을 베푸시는 성 그레고리오스(3세기)를 11월 17일 축일로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의 제자였던 성인은 학업을 마친 후 작별 인사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스승이신 오리게네스의 큰 가치와 제자로서의 깊은 감사를 보여줍니다. “스승들은 우리에게 예

술과 보살핌을 남겼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성 그레고리오스의 생애 대하여 성 대 바실리오스의 형제이신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대주교께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도 성 그레고리오스 네오게사리아의 주교에 대하여 그가 베푸시는 기적들과 영적 은총에 대하여 “예기치 않는 진리의 적들에 대한 두 번째 모세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야 팔십 년, 그나마 거위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1시과를 보며 시편 90을 읽으면서 항상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잘 마감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인간은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을 배우게 되어 결국은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얻은 인생은 거위가 고생과 슬픔에 젖어 지내게 된다. 일주일씩 보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낸 날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 하고 되짚어 보면, 하루라도 제대로 있었을까 한다. 하루 중 순간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지냈다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하느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자책을 하게 된다.

죽음은 누구나가 맞이하게 되는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물에 욕심내고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도 재물로 인해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다. 부자 라자르와 같은 사람들이다.

오래전에 말기 위암 환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는 젊어서부터 돈을 벌려고 온갖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재물을 모으며 살았다. 그가 알고 있는 행복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어 나 이 욕심이 되고 남들한테 위세부리며 살 때쯤 되었을 때,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 돈을 쓰면 이런 죽을 병도 의사들이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병세를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 그는 VIP병실에 있었고 누워있는 그에게 병실이 좋다 하자, 하는 말이 “신부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일억이 넘습니다.”하며 자신의 부를 은근히 자랑하였다. 그는 그때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돈의 위력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실에 가보니 투병으로 몹시 지친 상태였고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결국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도 바울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듯 충고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재물을 탐내고 인색한 사람은 마음도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당신의 다른 반쪽을 위한 기도

안드레아스 코나노스 신부



우리 교회 전통의 빛과 거룩한 교부들의 경험 안에서 성서를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고 지체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직 하나뿐인 인격적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서 맺어질 두 사람도 부부 간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신비를 통해 이런 사랑을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가정을 꿈꾸며 먼저 자신의 짝을 찾는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래의 기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에페소 5:25, 32)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아시나요? 친숙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그(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한편에는 알려진 또 다른 누군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길에 그 사람이 함께 하도록 두실는지 아는 것은 몇 날이나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물음입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장년회 가을 단합대회

지난 11월 10일 주일 성찬예배 후 장년회 회원 16명이 남산 둘레길 단풍 구경 트래킹을 다녀왔습니다. 2시간 20분가량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 단풍을 만끽했고 서로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철야예배

오는 11월 29~30일 첫 부름 받은 사도 성 안드레아 축일을 맞이하여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4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주변모 수도원 방문

2019년 11월 9일 성 벵타리오스 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부인회 및 원로회 회원 14명은 가평 주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함께 일일 영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순종’이란 주제로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다니엘 대신부의 집전으로 대만과를 드렸습니다. 부인회가 준비해 주신 점심 식사를 함께 한 후, 참여한 모든 회원은 수도원 주변 환경을 정리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모 수도원

■ 주차장 및 창고 건립

지난 10월 31일(목)~11월 7일(목)까지 가평 주변모 수도원에서 마태오 이경섭, 니콜라오스 채성근, 베드로 서진용, 다니엘 김성중, 그레고리오스 박노양, 토마스 하정훈, 니끼 김종희, 가브리엘 김정선 교우들께서 주차장과 창고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수고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 11월 21일(목) 성모 입당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